

“문화전당, 5·18 정신 담으려 채우는 대신 비웠죠”

컬쳐 & 피플

건축가 우규승

거대한 天窓 60개 설치 낮엔 빛 끌어들이고 밤엔 조명 쏘아올려

우규승(73) 선생은 지난 10일 두번째 만남에서도 문화전당 현장을 챙기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2005년 국제 건축설계경기 공모 당선작에 선정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설계를 맡게된 후 지금까지 9년 동안 한결같은 일정이다. 1, 2개월에 한 번 꼴로 미국 미국 보스턴과 광주 현장을 오가고 있다.

그는 문화전당 설계안은 여러 난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자신의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등 광주 민주화운동 유적을 보존하는 것을 비롯해 도심녹지의 부족, 광주에 세워지는 아시아적인 건물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이 응축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 유적과 그 정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과감하게 신축될 건물(아시아예술극장, 창조원,정보원,어린이 문화원)을 지하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설계안을 제시했다. 설계안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일부 심사위원은 “다른 건축가들과 설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했다. 전체 공모작 가운데 우규승 선생의 작품만 유일하게 건물을 지하로 배치했기 때문이었다. 그 덕분에 광주지역에서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논란이 제기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파리 에펠탑 등 새로운 건축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새로운 것은 친근하지 않기 때문이죠. 건축가로서 문화전당의 주어진 여건과 제약을 고만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이 설계안이었습니다. 저는 5월 광주항쟁 정신과 공간을 강조하기 위해 채우는 대신 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5월 건물들을 압도하는 고층건물을 설계하지 않은 것이죠. 제 설계안에는 임금님의 거처를 중앙에 놓듯 도청별관 등 5월 유적을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 건물은 중심을 떠받치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논란도 건축에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가 30차례 이상 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자청한 것도 그런 이유죠. 특히 문화전당이 저 자신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우리세대를 넘어 미래에도 존속해야할 건물이라는 데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규승 선생은 문화전당에 ‘빛의 숲’이라는 건축철학을 녹여넣었다. 그가 생각하는 빛은 이렇다. 광주의 빛은, 앞을 내다보는 것, 지난 과거를 반사시키는 것이기도 해서다. 문화전당은 숲과 빛을 주제로 한 설계개념이 곳곳에 들어있다. 문화전당의 주요건물을 지하에 배치하고 건물들이 배치된 지표면은 사실상 거대한 녹지(4만 여평)으로 꾸며진다.

건축철학의 핵심은 인본주의 사람들이 건축물에서 느낌 갖는 것에 관심

녹지는 현상 설계 공모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우규승 선생의 장안이었다. 광주는 도심 녹지가 부족하고 특히 광주 동구의 경우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천창(天窓) 60여개는 낮에는 빛을 지하에 배치된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고, 밤에는 조명빛을 쏘아올리도록 돼 있다.

“저는 문화전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건축가로서 건물 세세한 부분까지 설계해서 규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환경의 변화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을 바꿔갈 수 있는 건물이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필요에 따라 어떤 공간을 바꿔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우규승 건축가는 미국의 교육수도, 건축수도인 보스턴을 대표하는 재미 건축가다. 서울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건축학, 하버드대학교에서 도시설계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MIT 건축학부 및 하버드대학교 건축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 선생이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문화전당 건립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학원에서 강의했다. 서울올림픽 선수촌(1985), 한기미술관(1992년)이 그의 설계를 거쳐 탄생했고, 1997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실(2000), 버닝턴 대학 기숙사(2001), 너먼 현대미술관(2007) 하버드 대학 대학원생 기숙사 등 미술관과 학교, 공공 건물 등을 설계했다.

그가 설계한 하버드대학 기숙사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돼 보스턴 건축가들이 주는 최고의 상인 할레스턴 파커 메달(Harleston Parker Medal)을 받았다. 그는 우규승 건축사무소(KYU SUNG WOO ARCHITECTS)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건축 철학의 핵심은 인본주의다. “저는 건축물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사람들이 건축물에서 느낌을 갖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물 이용자들이 그 건물을 만지고, 재료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시간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천양지차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과 이동하는 동선을 점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규승 선생에게 미래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명했다. “다음에 내가 하게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계속하고 싶은 것이 자신이 소망이라는 말이었다. 노 대가는 인터뷰를 마친 뒤 문화전당 공사현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더

“박 기자님 피곤하지는 않으신지요? 어제 ‘근대로(路)의 여행 골목투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꼭 한번 관람하러 광주에 가겠습니다...”

대구 근대골목을 취재하고 돌아온 지난달 29일 오전, 기자는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루 전날 기자일행을 안내한 골목해설사 장삼남씨였다. 기자의 다른 취재일정으로 중간에 헤어져 배웅하지 못한 게 마음이 걸렸던 모양이다. 사실 2시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기자에게 강한 인상을

구간인 진골목에 위치한 미도다방은 대구 시민들과 동고동락해온 ‘문화 사랑방’이다. 마치 시계바늘이 멈춰선 듯 30년 전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옛날식 다방’은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

정여사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분위기’만 살짝 보고 가려는 기자 일행에게 “10분이면 된다”며 자신이 직접 만든 쌍화차와 전통과자를 건넸다. 광주에서 먼 길을 온 한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녀는 광주에도 이런 다방이 있는지, 손님들은 많은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광주에 가면 근대골목을 잘 소개해달라”고 신선

‘친절한 삼남씨’

주었다. 그동안 취재현장에서 많은 해설사를 만났지만 그녀만큼 친절하고 열정적인 가이드는 처음이었다. 그녀 덕분에 대구사투리가 그렇게 정겨운지 처음 알게 됐다.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주어진 2시간이 부족했는지 삼남씨의 발걸음과 맑은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지기 시작했다. 비록 대구의 도시 심 전례를 둘러보진 못했지만 그녀의 ‘귀에 속속 들어오는’ 친절한 설명 덕분에 근대골목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도로 개설로 한때 철거위기에 놓였던 민족시인 이상화 고택을 대구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냈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선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삼남씨 못지 않게 대구에서의 훈훈한 추억을 안겨준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미도 다방’의 주인인 ‘귀에 속속 들어오는’ 친절한 설명 덕분에 근대골목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도로 개설로 한때 철거위기에 놓였던 민족시인 이상화 고택을 대구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냈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선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부했다.

언제부터가 ‘대구’ 하면 ‘근대골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대구 읍성 주변의 골목에 스며있는 이야기를 찾아가는 근대골목투어는 ‘2012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100선’에 선정된 데 이어 2013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했다. 2008년 287명에 불과했던 골목투어 탐방자 수는 지난해 20여 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이 같은 성과에는 근대골목의 역사와 문화, 여기에 이야기를 덧붙인 스토리텔링이 있었다. 하지만 기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건 장삼남 해설사, 정인숙 여사와 같은 시민들의 ‘대구사랑’이었다. 이들은 외지인에게 자신의 일에서 친절한 미소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관광 대구’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리고 보면 도시를 살리는 주인은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 여름학기 6월 개강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광주 YMCA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센터 여름학기(6~8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새로 개설한 ‘애니메이션을 꿈꾸다’는 초등학생들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컬러폴리먼트’, ‘샌드애니메이션 배우기’, 그리고 유아들을 위한 ‘꼬마버스 타요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엄마와 나랑’ 유아 프로그램은 ‘다빈치 세계’ 등 7개의 미술체험 놀이 과정도 운영한다.

성인들을 위한 수채화, 도자기, 인물화 등의 과정은 다양한 작가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 미술심리치료사, 샌드아트교육사, 천연비누만들기 등 과정에서는 배움과 함께 자격증도 딸 수 있다. artmuseum.gwangju.go.kr. 문의 062-613-718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의 빛은
미래 향한 과거의 반사
이용자들 참여해야
전당 건축의 완성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동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윤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문골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침단	973-2900
창평	224-8212
풍암	376-6511
하남	682-8112
화정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순창군	063)653-0444
군산시	063)467-2500	고창군	070-8201-0370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원시	063)633-9911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_062 227-9600 | 신문구독 _062 220-0551 | 예향구독 _062 220-0550